

재난 신화에 관한 분석

An Analysis of Disaster Mythology

김 만 재*
Kim, Manjae

Abstract

Disaster mythology is “beliefs about human behavior in disaster that have been proven to be wrong through scientifically conducted research studies.” Disaster researchers have discovered a series of disaster myths. The results of research survey based on 491 individuals confirm prior research representing widespread belief in disaster mythology such as panic, looting, crime, evacuation and lethargy. This study also indicates that, while high, the percentage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monstrating belief in disaster myths was lower than the public except for looting. The probability of believing disaster myths was greater for individuals who were female (panic and evacuation), old (evacuation and lethargy),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looting), and officials with disaster related work experience (panic, looting and crime). The results indicate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public belief to make effective emergency plans.

key words : disaster myth, panic, looting, crime, evacuation, lethargy

요 지

재난 신화란 "과학적으로 실시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잘못이라고 입증된, 재난 발생시 인간 행동에 관한 믿음"으로서, 이제까지 재난 연구자들은 무수한 재난 신화를 발견하였다. 4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공포, 약탈, 범죄, 대피, 무력감 등의 재난 신화에 대한 믿음이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약탈을 제외하고 공무원들은 일반인들보다는 재난 신화를 믿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은 공포와 대피 신화를 믿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노인층이 대피와 무력 신화, 20대와 30대는 약탈 신화를 믿는 퍼센트가 높게 나타났으며, 방재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보다 공포, 약탈, 범죄 신화에 관한 믿음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효과적인 재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난 신화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용어 : 재난 신화, 공포, 약탈, 범죄, 대피, 무력

1. 서 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인간 행위에 관한 최초의 관심으로는 1920년 Prince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 “재난과 사회 변화” (*Catastrophe and*

Social Change)를 들 수 있다(Drabek, 1986: 1-2). 그의 논문은 응급 행위, 공동체 복구, 구호 활동에서의 갈등 등 오늘날 재난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되는 다양한 주제를 처음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Scanlon, 1988: 215).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격적인 재난 연구는 1950-1954년 동안

* 정희원 · 강릉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E-mail : mjkim@kangnung.ac.kr)

육군 화학 센터(the Army Chemical Center)의 지원을 받은 시카고 대학교의 NORC(the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 의해 시작되었다(Quarantelli, 1987).

이 당시 미국 연방 정부는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대응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1950년대 미국에서 수행된 일련의 재난 연구는 군사적 목적을 대변하여, 사회학적이거나 또는 정신의학적인, 심리학적인, 혹은 사회심리학적인 요소가 강하였다(Quarantelli, 1987). 하지만 사회학자들이 재난 연구의 중요 구성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재난 상황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와 같은 사회학적 문제 또한 부각되었다(Fritz and Marks, 1954).

그 결과 1950년대 동안, NORC를 위시한 일련의 재난 연구로부터 수많은 사회학적 주제들이 파생되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기여 중의 하나가 바로 재난 신화에 대한 분석이다(Barton, 1970: 61). 재난 신화에 대한 이해는 재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이미지와 실제 행동과의 괴리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재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재난 신화는 그 실체를 밝히려려고 노력하였던 초창기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Quarantelli, 1960, 1994; Cornwell et al. 2001; Tierney et al. 2006).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난 신화에 대한 개념 정도만 소개되었을 뿐(김만재, 2005) 현황 분석조차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재난 신화의 개념, 유형 및 근원을 제시하고, 미국에서 이미 입증된 다섯 가지 대표적 재난 신화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재난 발생시 인간 행위에 대한 믿음을 분석한 후, 결론에서는 재난 신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효과적인 재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2. 재난 신화의 개념 및 유형

2.1 재난 신화의 개념

신화(mythology)의 사전적인 정의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틀린 아이디어나 사실”(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이다. 예를 들면 지구는 평평하기 때문에 저 멀리 수평선 너머 향해하는 사람들은 모두 떨어져 죽을 것이라고 고전적으로 믿었던 것은 신화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ottman, 2000: 11-5). 동화, 조각, 영화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재창조되

고 있는 인어공주의 개념 또한 신화에 속한다.

이러한 신화의 개념을 재난에 적용하면, 재난 신화란 “과학적으로 실시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잘못이라고 입증된, 재난 발생시 인간 행동에 관한 믿음”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Drabek, 1996: 6-2). 재난 상황에서 인간이 취할 것이라고 가정한 몇 가지 행동들은 실제 현장 관찰, 인터뷰, 기록을 통한 조사 분석에 의하면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다. Quarantelli는 1950년대의 현장 조사를 통하여 공포, 의존, 통제 이미지가 전형적인 재난 신화임을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재난 때문에 히스테릭해진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도망치고, 이재민들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어야만 하며, 대피 상황에서 이재민들은 통제 가능하다는 믿음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Quarantelli, 1960: 68-79). 그런데 이러한 재난 신화는 일반 대중들 뿐 아니라, 심지어 상당수의 전문 위기 관리자들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rabek, 1996: 7-B).

2.2 재난 신화의 유형

이제까지 진행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재난 신화의 유형은 다양하다. 1996년 EMI에서 발간한 「재난의 사회적 요소」에서 Drabek은 재난 신화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14가지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Drabek, 1996: Chapter 6).

1. 대피 행동: 재난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발효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 대피한다.
2. 대피장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 대피소로 피난한다.
3. 공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재난 반응은 공포이다.
4. 약탈: 재난 영향 전과 특히 재난 발생 후에는 더 심하게 약탈이 일어난다.
5. 반사회적 행동: 재난 동안 사람들은 야생동물처럼 되어 다양한 반사회적 행동을 한다.
6. 전염: 재난이 발생하면, 공포와 비이성적 행동은 전염된다. 한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압도되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비이성적 행동을 하면, 전 집단이 히스테릭하게 된다.
7. 무기력: 대부분의 재난 희생자들은 재난 쇼크를 반영하는 극도의 무기력한 행위를 보여준다.
8. 심리적 의존: 대부분의 재난 희생자들은 너무나 쇼크를 받아서 구조 요원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한다.
9. 재난 파괴: 대부분의 재난은 공동체 복귀 능력을

제거할 정도로 생명과 자산을 파괴한다.

10. 역할 포기: 재난이 발생한 동안, 대부분의 재난 관리자들과 식구들과 있기 위하여 일터를 떠날 것이다.
11. 바가지: 재난 후 희생자들은 수요에 비해 물건이 모자랄 것이라고 판단한 지역 상인들 때문에 가격 바가지를 경험한다.
12. 사기(morale): 재난으로 인한 물리적, 정신적인 파괴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는 극심한 사기 저하를 경험한다.
13. 계엄령: 재난 후, 약탈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개 계엄령이 공포된다.
14. 위기 관리자로서의 군(軍): 위기 관리자가 되기 위한 가장 훌륭한 훈련은 군경험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 신화들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를 들면, 사람들은 경고를 듣고도 대피하지 않고, 대피를 하더라도 공공 대피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2.3 재난 신화의 근원

사람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재난 신화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우선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재난을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신화를 믿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21%에 불과하였으나, 11개의 재난 신화에 대하여 86% 이상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응답하였다(Wenger et al., 1975). 이에 대하여 Drabek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 행동에 관한 잘못된 이미지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운다고 결론을 내렸다(Drabek, 1996: 7-5).

미디어 또한 재난에 관한 신화적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재난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근원은 미디어이다. 따라서 미디어가 주민들과 위기 관리자들과의 반응을 정확하게 보도한다면 사람들은 명확하게 사실을 인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Fischer, 1998: 37). 미디어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왜곡, 과장하여 재난 신화를 강화시킨다는 증거는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Goltz, 1984; Wenger and Friedman, 1986; Fischer, 1998). 최근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를 보도할 때에도 미디어는 약탈과 불법 행위를 지나치게 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Tierney et al., 2006). 이에 대하여 Tierney 등은

사회적 불안에 대한 강조는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이는 곧 재난 관리를 위하여 군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군국주의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Tierney et al., 2006).

재난 신화를 강화시키는 또 다른 일반적인 근원으로는 영화를 들 수 있다. Quarantelli는 36편의 재난 영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난 영화는 과학적으로 잘못된 아이디어나 경험적으로 부정확한 사실을 제시하고, 특히 영화 장면 중에 무질서하게 대피하는 모습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는 악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난이 복잡한 사회체계에 의하여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몇몇 나쁜 사람들이 재난을 일으키는 것처럼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Quarantelli, 1985; Drabek, 1996: 7-9).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재난 신화에 관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난 신화의 현황과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어떻게 재난 신화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재난 신화의 근원은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타이타닉, 퍼펙트 스톰, 투모로우, 일본 침몰 등 무수한 재난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상영되었고 이 중에는 흥행성이 높은 작품들도 많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재난 영화의 왜곡된 장면에 익숙해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의 언론사들이 특파원을 활용하여 인간적인 관심사를 자극하는 경향이 높아졌는데(권혜선, 2006), 이러한 뉴스의 연성화는 재난 신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여지가 있다.

3. 재난 신화의 분석

3.1 조사 방법

재난 신화의 현황을 분석하여 2007년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 동안 강릉시와 평창군의 주민 및 강릉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비용과 시간의 한정 때문에 조사자가 모집단의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판단추출법을 사용하여(이동원, 김성호, 2006) 설문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재난 신화의 현황 파악 뿐 아니라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변수별 응답자수를 고려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enger 등(1975)의 연구에 기반하

여 가장 대표적인 재난 신화, 즉 공포, 약탈, 범죄, 대피, 무력을 선정한 후,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설문 문항으로 만들었다. 또한 응답자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수해경험, 직업(공무원과 일반인으로 구분), 공무원의 경우 방재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문항 설정은 미국의 재난 연구에서 재난 경고나 대피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노인은 대피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에 허리케인을 경험한 사람들 또한 대피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에 기반하였다(Peacock et al., 1997; Drabek, 2000). 또한 Drabek은 일반인들과 위기 관리자들의 재난 신화에 대한 믿음을 비교 분석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들, 특히 방재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위기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설문 응답자는 총 495명이었으나, 이 중에서 전반적으로 불성실하게 답한 4명을 제외하고 총 49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속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243명(49.6%), 여자가 247명(50.4%)이었고, 연령별로는 10대가 45명(9.2%), 20대가 66명(13.5%), 30대가 86명(17.6%), 40대가 104명(21.2%), 50대가 87명(17.8%), 60대가 53명(10.8%), 70대 이상이 49명(10.0%)이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에서 수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83명(37.7%)인 반면,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303명(62.3%)인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를 직업별로 구분하면, 일반인은 379명(77.2%)이었고 공무원은 112명(22.8%)이었다. 공무원 집단을 방재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분류하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42명(40%)인데 반해 근무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63명(60%)이었다.

본 자료는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성별,

연령, 수해경험, 직업, 방재 부서 근무에 따라 재난 신화에 대한 믿음이 상이한가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카이제곱 검증을 사용하였다.

3.2 재난 신화 분석

3.2.1 공포

재난 발생시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정신없이 도망치는 모습은 영화에 흔히 등장한다. 하지만 사회학적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재난 경고가 발효되었을 때 도망치기 보다는 재난의 심각성을 믿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Drabek, 1996: 6-6). 또한 경고가 없는 상태에서 재난을 당했을 경우, 무질서하게 도망치기보다는 자기를 통제하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포 행위는 특별한 사회적 상태에서만 발생하고, 대부분의 재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9/11 테러와 런던 폭발 사고에서도 사람들은 친사회적인 이타적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Schoch-Spana, 2005).

이처럼 공포에 대한 믿음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공포 신화를 믿는 경향이 높다. 미국에서의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약 84%의 응답자들이 공포 신화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Wenger et al. 1975). 본 조사에서는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겁이 나서 도망친다”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약 78%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답하였는데, 이 수치는 미국보다 낮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공포에 대한 믿음이 유사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각 변수별 차이점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공포 신화를 믿는 비율이 높았고, 일반인들은 공무원들보다 공포 신화를 믿는 경향이 높았으며, 공무원들 중에서는 방재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공포 신화를 더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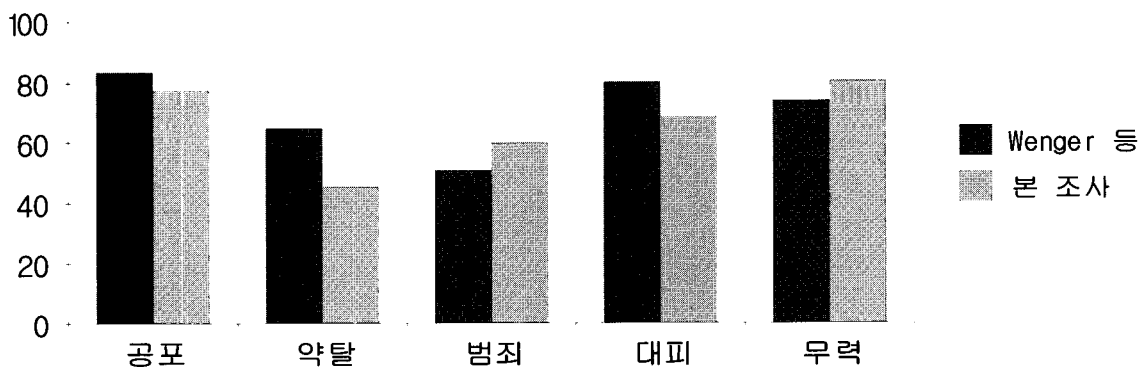


그림 1. 재난 신화의 비교

3.2.2 약탈

Wenger 등의 조사에서는 64.7%가 재난 현장에서의 약탈을 믿는다고 답하였고(Wenger et al. 1975), 미국에서 행해진 대부분의 재난 조사에서는 70~90%의 이재민들이 약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Quarantelli, 1994). 하지만 실제 약탈 사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확실하게 약탈 사례라고 할 만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Dynes et al., 1981: 25~26). 신문에서는 심각한 약탈 사건을 헤드라인 뉴스로 보도하고, 돈, 시계, 심지어 금이빨까지 약탈자들에 의해 강탈되었다고 보도하는 기사도 있었으나, 현장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도들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Drabek, 1996: 6-7). 그러나 허리케인 휴고(Hugo, 1989)와 앤드류(Andrew, 1992)의 경우처럼 약탈 행동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Drabek, 1996: 6-8). 따라서 전형적으로는 재난 후 약탈이 거의, 혹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예외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Quarantelli는 특정한 경우, 즉 매우 계층적인 사회적 구조로 인해 권리 박탈에 대한 집합적 감정이 있고, 사소한 절도가 계속 있으며, 자연재난 발생 후 며칠 동안 합법적 당국이 일시적으로 사회를 통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약탈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였다(Quarantelli, 1994).

본 조사에서는 다섯 가지 재난 믿음 중에서 약탈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다른 신화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지지하였으나, “자연재난이 일어난 곳에서 종종 약탈이 발생한다” 라는 질문에 대하여 45.4%의 사람들이 약탈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태풍 루사에 대한 보도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피해, 성금, 복구에 관한 내용이었으며(김만재, 2005) 약탈에 관한 기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약탈에 대한 믿음이 미국보다 낮게 나온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 거의 반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약탈에 대한 믿음을 표시하였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약탈 신화가 널리 퍼져있음을 제시한다. 표 1에 의하면,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약탈 신화가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들 중에서 방재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약탈에 대한 믿음이 61.9%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방재 근무 공무원은 38.1%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3.2.3 반사회적 행동-범죄

재난이 발생하면,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Wenger 등의 연구에서는

50.8%의 응답자들이 자연 재난이 일어난 후에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Wenger et al. 1975).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범죄 신화를 확증해 줄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66년 허리케인 베치가 미국 남부 지역을 심하게 강타하여 7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으나, 이 지역의 범죄율은 전체 같은 달보다 26.6% 감소하였고, 강도는 617건에서 425건으로 줄었으며, 50불 이상의 절도는 303건에서 264건으로, 50불 미만의 절도는 516건에서 366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Quarantelli and Dynes 1972: 69).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경우에도 마치 뉴올리언스에서 범죄가 심각한 것처럼 보도된 적이 있었으나, 이는 인종 편견에 기반한 재난 신화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Reckdahl, 2006).

본 조사에서는 “자연재난이 일어난 곳에서는 범죄가 증가한다”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약 60%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변수별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인들은(62.8%)은 공무원들에(49.5%) 비하여 범죄 증가를 더 많이 믿는 경향이 있었고 공무원 중에서는 방재근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과(35.7%)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60.3%)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다.

강릉시는 2002년과 2003년에 연달아 태풍 루사와 매미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러한 자연재난이 강릉시의 범죄율을 증가시켰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우선 강릉시 전체 범죄발생 건수를 보면 2001년에는 10,607건이었으나 2002년에는 10,067건으로 감소하였고, 그 이후 해마다 11,144건, 11,773건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에는 8,661건으로 감소하였다. 절도범은 2001년 1,204건을 정점으로 2002년 891건, 2003년 683건, 2004년 588건으로 계속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는 930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강릉시, 2006). 범죄 통계를 자세하지 않아 자연재난과 범죄율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소한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3.2.4 대피

그림 1에 의하면, Wenger 등의 연구에서는 재난 경고가 있을 때 주민들이 곧 대피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2%였다(Wenger et al., 1975: 42). 본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난 경고를 들으면, 즉시 대피한다”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68.5%인 331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대피 신화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특히 여성들, 60대 이상의 노인층, 일반인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실행된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표 1. 재난 신화

	공포		약탈		범죄		대피		무력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합계	379 (77.5)	110 (22.5)	220 (45.4)	265 (54.6)	291 (59.8)	196 (40.2)	331 (68.5)	152 (31.5)	390 (80.6)	94 (19.4)
성별										
남	168 (69.4)	74 (30.6)	110 (45.6)	131 (54.4)	140 (57.6)	103 (42.4)	151 (62.9)	89 (37.1)	188 (78.3)	52 (21.7)
녀	210 (85.4)	36 (14.6)	109 (44.9)	134 (55.1)	150 (61.7)	93 (38.3)	179 (74.0)	63 (26.0)	201 (82.7)	42 (17.3)
χ^2 값	17.762***		.030		.855		6.815**		1.480	
연령										
10대	33 (73.3)	12 (26.7)	17 (37.8)	28 (62.2)	19 (43.2)	25 (56.8)	28 (62.2)	17 (37.8)	28 (63.6)	16 (36.4)
20대	58 (87.9)	8 (12.1)	43 (66.2)	22 (33.8)	43 (65.2)	23 (34.8)	39 (59.1)	27 (40.9)	50 (78.1)	14 (21.9)
30대	64 (75.3)	21 (24.7)	50 (58.1)	36 (41.9)	60 (69.8)	26 (30.2)	51 (60.0)	34 (40.0)	68 (80.0)	17 (20.0)
40대	78 (75.0)	26 (25.0)	50 (48.5)	53 (51.5)	61 (59.2)	42 (40.8)	64 (64.0)	36 (36.0)	81 (79.4)	21 (20.6)
50대	64 (73.6)	23 (26.4)	30 (34.9)	56 (65.1)	53 (60.9)	34 (39.1)	59 (69.4)	26 (30.6)	73 (83.9)	14 (16.1)
60대	45 (86.5)	7 (13.5)	20 (38.5)	32 (61.5)	30 (56.6)	23 (43.4)	44 (84.6)	8 (15.4)	48 (92.3)	4 (7.7)
70대 이상	36 (73.5)	13 (26.5)	9 (19.1)	38 (80.9)	24 (51.1)	23 (48.9)	45 (91.8)	4 (8.2)	41 (83.7)	8 (16.3)
χ^2 값	8.789		36.319***		11.157		25.957***		13.889*	
수해경험										
있다	141 (77.5)	41 (22.5)	75 (41.9)	104 (58.1)	101 (56.4)	78 (43.6)	120 (67.8)	57 (32.2)	150 (84.3)	28 (15.7)
없다	236 (78.1)	66 (21.9)	143 (47.5)	158 (52.5)	188 (62.0)	115 (38.0)	209 (69.4)	92 (30.6)	237 (78.7)	64 (21.3)
χ^2 값	.030		1.424		1.481		.139		2.206	
직업										
일반인	312 (82.8)	65 (17.2)	161 (43.2)	212 (56.8)	236 (62.8)	140 (37.2)	274 (73.7)	98 (26.3)	310 (83.1)	63 (16.9)
공무원	67 (59.8)	45 (40.2)	59 (52.7)	53 (47.3)	55 (49.5)	56 (50.5)	57 (51.4)	54 (48.6)	80 (72.1)	31 (27.9)
χ^2 값	26.057***		3.146		6.225*		19.721***		6.660*	
방재 근무 경험										
있다	20 (47.6)	22 (52.4)	16 (38.1)	26 (61.9)	15 (35.7)	27 (64.3)	20 (47.6)	22 (52.4)	27 (64.3)	15 (35.7)
없다	44 (69.8)	19 (30.2)	39 (61.9)	24 (38.1)	38 (60.3)	25 (39.7)	33 (52.4)	30 (47.6)	50 (79.4)	13 (20.6)
χ^2 값	5.229*		5.727*		6.102*		.229		2.930	

주) ***: p<.001, **: p<.01, *: p<.05

경고를 듣더라도 쉽게 떠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Drabek, 1996: 6-5).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을 강타하였을 때에도 상당수의 뉴올리언스

시민들은 대피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전시가지가 물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게 되자, 뉴올리언스 시장은 강제 대피령을 내려야만 했

다. 뉴올리언스 주민들이 대피하지 않은 이유는 재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재산이 약탈당할까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다(CNN, 2005).

이처럼 실제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대피 명령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피 신화를 믿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재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외적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민 자신의 판단에 의해 피난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조사 결과는(이영우, 2005: 22) 적어도 현행 대피 명령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3.2.5 무력

Wenger 등의 분석 결과를 보면, “재난이 일어난 즉시, 재난 희생자들은 쇼크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라는 질문에 73.7%의 응답자들이 동의하였다(Wenger et al., 1975: 42). 본 조사에서 무력감에 대한 질문은 응답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즉 80.6%에 해당하는 390명이 “재난을 당한 직후에, 이재민들은 충격을 받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발견되었으며, 일반인(83.1%)들은 공무원들(72.1%) 보다 이런 신화를 믿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믿음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한다. 몇몇 희생자들은 무기력을 입증할 만큼 현혹시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 후에만 발생할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몇 분만 지나면 자신을 추스를 수 있게 되며, 며칠 동안 목적 없이 방황하는 희생자의 이미지를 지지할만한 조사 결과는 거의 없었다(Drabek, 1996: 6-10).

1979년 텍사스주 위치타 폴에서 일어난 토네이도로, 45명이 사망하고 9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원 치료를 요하는 심한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표본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에서 5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토네이도가 지나가자마자 즉시 탐사와 구조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계해 보면 그 당시 비공식적인 구조자 수는 2만 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Drabek et al, 1981: 95-97). 한국에서도 태풍 루사가 발생했을 때 삼척시 자원봉사의 81%가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권건주, 2007) 이재민들이 무력하게 남의 원조에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본 조사에서 80%가 넘는 사람들이 동의한

무력감 신화는 신화의 근원에서 언급하였듯이 미디어에 의해 왜곡 형성되었을 확률이 높다. 태풍 루사의 보도 사례를 보면, 이재민들의 강한 태도는 10.8%에 불과하고 77.1%에 이르는 인터뷰 내용들이 이재민들의 무력한 모습을 표출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김만재, 2005).

4. 결 론

본 조사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공포, 약탈, 범죄, 대피, 무력에 관한 믿음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Wenger 등이 조사한 결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약탈과 대피에 대한 믿음이 미국보다 낮았지만 무력에 대한 믿음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고무적인 측면은 공무원들, 특히 방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재난 신화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업무를 통하여 재난 발생시 인간 행동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 상황에서는 다르게 표출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난 행위에 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재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할 때 행정 관료나 정치인들은 이러한 이미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화적 이미지에 근거한 재난 계획은 실패하기 마련이다(Quarantelli, 1960). 따라서 재난 신화에 관한 지식은 인간 행동과 사회 집단을 이해하려는 사회학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Drabek, 1996), 재난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재난 신화를 믿고 있거나 그렇지 평가하여 재난 관리 정책이 비과학적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권고한다. 또한 일반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재난 신화를 믿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좀 더 현실적인 재난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자연재난 행동 표준화 Manual을 보면 아직까지 주민 행동을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은 수준이다. 강릉시의 대피 행동 요령을 보더라도, 언론 매체를 통해 상황을 전달하면 주민들은 정해진 대피소로 대피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강릉시, 2007). 현실적인 대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추상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는 것이 효과적인지 조사한 후에, 그

결과를 대피 계획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무력 신화에서 탈피하여, 응급 복구가 조직화되지 않은 이 재민 당사자들에 의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강릉경찰서의 주요 업무로 수해지역의 경비 및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약탈 및 범죄 신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약탈자를 수색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조사된 연구에 기반하여 재난 신화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미국에서는 지역사회 재난 교육 가이드에서도 재난 신화를 언급할 정도로 재난 신화는 보편적 개념으로 정착되었으나(American Red Cross, 1992),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한 편이다. 사회문화적, 재난 정책상의 차이로 인하여 나라마다 재난 신화의 종류와 정도는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재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적 재난 신화를 발견하기 위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5년도 강릉대학교 장기해외파견연구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강릉시청 재난관리과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강릉시 (2006) 강릉시 2006년 통계연보.
 강릉시 (2007) 자연재난의 행동 표준화 MANUAL.
 권건주 (2007) 풍수해 발생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제3차 세미나. pp. 73-83.
 권혜선 (2006) 재난보도의 연성화 경향 연구: 고베 지진과 태풍 카트리나 국내보도 비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김만재 (2005) 자연재난 보도의 특성 분석: 태풍 루사의 사례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한국방재학회, 제 5권, 제3호, pp. 1-9.
 이동호, 김성호 (2006) 엑셀을 활용한 현대통계학. 서울경제경영.
 이영우 (2005) 침수지역 주민의 피난대응과 최적의 정보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삼척대학교.
 American Red Cross (1992) *Community disaster*

education guide. American National Red Cross, Washington, D.C..
 Barton, A.H. (1970) *Communities in disaster*. Anchor, New York.
 Cornwell, B., Harmon, W., Mason, M., Merz, B. and Lampe, M. (2001) Panic or Situational Constraints? The Case of the M/V Estonia.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s* Vol. 19, No. 1, pp. 5-25.
 CNN. (2005) *New Orleans Will Force Evacuations*. September 7, 2005. (www.cnn.com/2005/US/09/06/katrina.impact/).
 Drabek, T.E. (1986) *Human system responses to disaster: an inventory of sociological findings*. Springer, New York.
 Drabek, T.E. (1996) *Social dimensions of disaster. FEMA instructor guide*. FEMA Management Institute, Emmitsburg.
 Drabek, T.E. (2000) Pattern Differences in Disaster-Induced Employee Evac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s* Vol. 18, No. 2, pp. 289-315.
 Drabek, T.E., Tamminga, H.L., Kilijaneck, T.S. and Adams, C.R. (1981) *Managing multi-organizational emergency responses: emergent search and rescue networks in natural disasters and remote area settings*. Institute of Behavioral Science,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Colorado.
 Dynes, R., Quarantelli, E.L. and Kreps, G.A. (1981) *A perspective on disaster planning*. Disaster Research Center,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io.
 Fischer, H.W.III. (1998) *Response to disaster: fact versus fiction and its perpetuation—sociology of disaster*.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Lanham, Maryland.
 Fritz, C.E. and Marks, E.S. (1954) The NORC Studies of Human Behavior in Disaster.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10, pp. 26-41.
 Goltz, J.D. (1984) Are the News Media Responsible for the Disaster Myths? A Content Analysis of Emergency Response Imagery.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s* Vol. 2, pp. 345-

368.

- Peacock, W.G., Morrow, B.H. and Gladwin, H. (1997) *Hurricane Andrew: ethnicity, gender and the sociology of disaster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Quarantelli, E.L. (1960) Images of Withdrawal Behavior in Disasters: Some Basic Misconceptions. *Social Problems*, Vol. 8, pp. 68-79.
- Quarantelli, E.L. (1985) Realities and Mythologies in Disaster Films. *Communications II*, pp. 31-44.
- Quarantelli, E.L. (1987) Disaster Studies: An Analysis of the Social Historical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Research in the Area.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s*, Vol. 5, pp. 285-310.
- Quarantelli, E.L. (1994) *Looting and antisocial behavior in disasters*. Preliminary Paper #205. Disaster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Delaware.
- Quarantelli, E.L. and Dynes, R.R. (1972) *Images of disaster behavior: myths and consequences*. Working Paper #37. Disaster Research Center, The Ohio State University.
- Reckdahl, K. (2006) Do You Know What It Means to Myth New Orleans? *Independent weekly*, Aug 23 2006.
- Rottman, S.J. (2000) *Individual and community disaster education course. FEMA instructor guide*. FEMA Management Institute, Emmitsburg.
- Scanlon, T.J. (1988) Disaster's Little Known Pioneer: Canada's Samuel Henry Prince.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s*. Vol. 6, pp. 213-232.
- Schoch-Spana, M. (2005) Public Responses to Extreme Events: Top 5 Disaster Myths. *Resources for the future first wednesday seminar*. Homeland Security, the Environment, and the Public.
- Tierney, K.J., Bevc, C. and Kuligowski, E. (2006) Metaphors Matter: Disaster Myths, Media Frames and Their Consequences in Hurricane Katrina.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04, No. 1, pp. 57-81.
- Wenger, D.E., Dykes, J.D., Sebok, T.D. and Neff, J.L. (1975) It's a Matter of Myth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Individual Insight Into Disaster Response. *Mass Emergencies*, Vol. 1, pp. 33-46.
- Wenger, D.E. and Friedman, B. (1986) Local and National Media Coverage of Disaster: A Content Analysis of the Print Media's Treatment of Disaster Myths.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s*, Vol. 4, pp. 27-50.

© 논문접수일 : 2007년 07월 13일

© 심사의뢰일 : 2007년 07월 16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8월 09일